KTRA
http://www.ktra.or.kr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한국관광연구학회 2008 춘계 학술발표대회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Residents' Perceptions toward Culture Tourism Development

함석종*·박선희**
Ham Suk Jong·Park Sun Hee

Abstract :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residents of Mangsang dong 'Yakcheon culture village' in Donghae city have perceived the culture tourism impact since the developed cultural village. The data for the study came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of resident of Mangsang dong where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was launched around the Yak cheon Nam Gu Man and his <Sijo>. Variable of this study is resident union is based on culture tourism destination development, preference about development for culture tourism destination, change is based on culture tourism destination development. It was measured that this variables have an effect on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attachment has an effect on community recommendation to visitor. The result of measuring was that resident perceived of positive to culture tourism development. And it was positive toward community attachment. Community attachment was positive toward community recommendation to visitor.
Keyword : 문화관광, 관광영향, 지역주민 인식

Ⅰ. 서 론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 소득증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삶의 질 향상 요구 증대로 다양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21세기의 관광은 세계 최대의 산업으로 관광선진국들은 지금의 위치를 유지·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관광을 '언어가 없는 선전, 굴뚝 없는 산업, 교과서 없는 교육, 구호 없는 정치, 회의 없는 외교'라는 효용성에 주목하고 관광개발 및 외래객 유치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조명환 역, 2000)

현대 관광시장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관광객의 욕구뿐만 아니라 관광 행태나 휴가성향까지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관광객들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또한 전통문화를 향유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김성혁,2000)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관광산업의 역할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지방화시대의 전개는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개발한 관광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독특한 문화나 역사

* : 강릉대학교 교수
**: 한중대학교

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의 개발은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은 지역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발전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개발여건, 객관적인 지역정보, 지역가치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내재적 특성과 지역외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강인원·손호기, 2006)

동해시 망상동의 '약천문화마을'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들의 자긍심 및 애착심을 향상함은 물론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1997년 '약천문화마을'지정 이후 현재까지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주변지역의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 상 관광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지로의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약천문화마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그들의 인식정도를 몇 가지 요인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관광지 개발을 통해 미치는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주로 관광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연구한데 반해 관광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약천문화마을'의 관광자원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고증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역사·문화적 사실을 바탕으로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동해시 망상동 '약천문화마을'의 주민들이 역사·문화자원개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문화관광개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관광의 개념

문화관광개발은 문화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의미를 정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손대현(2000)은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의 총칭, 특히 정신적 소득을 가리킨다. 즉 문화는 정신과 물질의 계속적인 교체의 결과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생활 자체가 전부 문화인 것처럼 문화의 외연은 실로 무한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라는 용어의 광범위함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관광은 용어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문화관광은 유적지와 기념물을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1985년 WTO의 연구논문에서 협의의 문화관광을 공연예술을 비롯한 각종 예술 감상, 축제 및 문화행사의 참여, 명소 및 기념물의 방문, 자연·민속·예술·언어등의 학습여행과 순례여행 등 문화적 동기에 의한 여행으로 보고 있으며, 광의로는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 경험, 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Richards(1997)는 문화관광을 '사람들이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보와 경험(체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생활로부터 떨어져 문화적 매력물을 찾아 가는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이라고 정의하였다. Silberberg(1995)는 문화관광이란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단체의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삶의 방식/유물에 대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방문지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 의한 방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Tighe(1991)는 문화관광을 여행(Travel), 관광객, 관광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특히 Travel이라는 용어를 '문화관광이란 사적지, 박물관, 시각적 예술품, 공연예술 등이 보장된 여행'이라고 하였다.

문화관광이란 일상생활로부터의 벗어나 타 지역을 방문한다는 관광의 관점에서 유형적 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관습 등을 체험하는 과정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화관광이란 일반적인 관광의 개념에 문화라는 매력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을 문화(역사)자원의 유형화를 통해 문화접촉을 촉구하고 타 지역의 생활양식, 관습 등을 체험하는 관광이라고 하겠다.

2.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관광영향은 관광개발 혹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에 따른 유·무형의 제효과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인식이 곧 지역주민들의 인식 혹은 지각이라 할 수 있다.(고동완, 2001)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관광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파급효과와 그 영향관계들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관광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비롯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1960년대에는 관광의 긍정적 영향, 1970년대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다가 19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관광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개되었는데 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연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만 사회·문화적·환경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최근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김의근(2004)은 관광단지가 조성된 중문관광단지와 관광단지 조성예정인 성산포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과 관광개발 영향간의 상관관계를 두 지역 주민들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김석출 ·최영희·김학군(2006)은 안면도 관광지의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의 입장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지각, 태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각 집단은 관광개발 영향에 대해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공무원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관광객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관광지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긍정적 태도와 지지가 지역관광의 성공에 중요하다(Andereck & Vogt, 2000;Perdue, Long & Allen, 1990) 홍수희(2003)는 드라마 촬영을 통해 관광지로 급성장한 정동진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관

광영향 지각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이후석(2004)은 드라마 '올인'의 촬영지인 제주도 섭지코지의 지역주민들의 관광영향 지각과 관광개발 태도의 인과관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 지역주민들은 관광영향의 환경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향상요인만이 관광개발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이원철·이훈(2005) 은 동굴관광지(울진 성류굴)를 대상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지역애착과 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애착심이 높을수록 추가적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을 밝히고 지역주민의 지지가 지역의 개발과 지역주민 참여에 주요한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조명환·양봉석(2004)은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김해시 문화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관광태도, 관광지원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어 문화관광지 개발의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역인 '약천문화마을'이 역사·문화적 사실을 바탕으로 관광지화하는 과정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대상지역 개관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대로 동해시의 최북단이며 강릉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다. 과거 이 지역은 강릉시 옥계면에 속해 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1980년 동해시에 편입되었다. 망상동은 모두 6개의 법정동(망상동, 초구동, 심곡동, 괴란동, 만우동, 사문동)이 있으며 25.78㎢의 면적에 총 가구수 1,882세대, 총인구수 4,316명(남 2,206명, 여 2,110명)이 있다.

망상동의 관광·문화유적지로는 망상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장, 약천문화마을, 해군전적비, 고래화석박물관이 있으며 오징어축제, 캠핑캐라바닝 페스티발 등이 개최되고 있다.

망상동에 조성된 '약천문화마을'은 1997년 강원도가 '강원의 얼 선양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곳은 조선 숙종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약천 남구만의 유배 시 창작한 시조 '동창이 불ᄀᆞ나냐.....'의 탄생지이다. 그 지정 목적은 '약천 남구만이 유배 시 "동창이 밝았느냐"라는 유명한 시조를 창작한 동해시 망상동 일대의 유적지를 복원하고 정비하여 지역의 정신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부각하고 청소년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시조문학의 역사적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강원도, 1997)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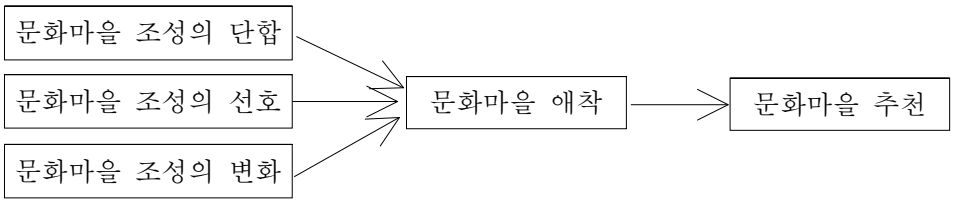
그러나 정책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약천 남구만 얼 선양회'가 구성되어 20여 년 간 남구만의 업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약천 남구만 얼 선양회’는 약천 남구만이 망상동(당시 우계현)에 머물렀으며 그 기간 동안 지역민들의 교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심곡사적기』,『임영지』등을 통해 고증하고 조사·분석을 통해 시조에 나타난 지명을 증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약천문화마을에는 약천 남구만 유적지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2006년까지 사업비 1,985,000천원을 투자하여 약천정자, 약천사당, 동재·서재, 약천각, 시조체험관 등 7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2007년에는 전통 숲 조성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약천 남구만 얼 선양회’의 뒤를 이은 ‘약천연구회’는 학술세미나, 제례행사 등의 약천 문화제를 개최하고 동해시우회, 동해한시인협회 등은 ‘남구만 시조 알리기 전국시조 경창대회’, ‘남구만 추모 전국 시조·시문 대회’ 등을 통해 약천문화마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

2.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지역에 대한 추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즉, 문화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이 갖는 의식이 지역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착은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지역의 문화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이 갖는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문화관광지역에 대한 애착, 문화관광지역의 추천에 순차적으로 작용하는가를 확인한다면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지역에 대한 애착, 지역의 추천은 논리적 연계성이 매우 긴밀한 변수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지역에 대한 애착, 지역의 추천을 순차적 영향관계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문화관광지역의 지역주민이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체계를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단합 유도,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선호도, 문화관광개발을 통한 마을의 변화에 대한 선호도로 변수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지역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착은 문화관광지역에 대한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3. 표본구성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동해시 망상동 지역에서 법정동(심곡동, 초구동, 만우동, 괴란동, 사문동)별로 구분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3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개별 방문을 통해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를 읽고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aries)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지역의 특성상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고령자임에 따라 면접원의 설명 후 응답자의 대답을 기입하는 면접자 기입식 설문지 (interviewer administered questionaries)방식을 병행하였다. 표본추출은 시간과 조사의 편리성이 강조되는 임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4. 연구설계

문화관광개발에 따른 지역민의 인식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크게 지역민의 내부적 의식과 외부적 영향으로 나누었다.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조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위해 내부적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부항목으로 주민의식(3개항목), 자긍심(3개항목), 정체성(3개항목)을 포함하였다. 외부방문객 및 크고 작은 지역행사를 통한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외부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대한 세부항목은 문화적 측면(3개항목), 교육적 측면(3개항목), 관광적측면(3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가족의 월 소득,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가족구성원, 결혼여부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9개항목)을 명목척도로 구성하고 총 27개 항목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지역민의 내·외부적 인식조사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5)', '전혀 그렇지 않다(=1)'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총 257부 배포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225부의 표본을 수집하여 최종분석하였다. 수집된 표본은 인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부적 의식 중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문화마을 조성이 마을을 단합시켰다고 보는가, 문화마을 조성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문화마을 조성으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주민의식이 문화마을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가와 마을에 대한 애착이 지역을 방문객에게 추천하는데 무리가 없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최종분석 대상인 유효 표본은 총 225명으로 성별 구성은 남자 56%, 여자 44%로 남자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연령별 구성비는 40대 24.4%, 50대 35.1%, 60세 이상 24.4%로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결혼 여부는 기혼 86.4%, 미혼 9.6%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23.1%, 고등학교 졸업이 38.2%로 월등히 높이 나타나고 있다. 직업 분포는 농/임/어/축산업 49.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약천마을이 1차 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동해시 북부지역에서 가장 넓은 평야(마상평)가 있으며 주로 논농사를 하고 있다. 소득수준은 월 평균 100만원 미만 30.7%, 101만원~200만원 42.7%, 201만원~300만원 20%, 301만원~400만원 4.4%, 401만원~500만원 0.4%, 500만원 초과 0.9%, 무응답 0.9%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구성비는 심곡동 16.4%, 초구동 13.8%, 만우동 18.2%, 괴란동 10.7%, 사문동 38.7%, 무응답 1.3%로 사문동 거주자가 월등히 높았다. 거주기간은 10년 미만 4.4%, 11년~20년 23.6%, 21년~30년 27.1%, 31년~40년 11.6%, 41년~50년 11.6%, 51년 이상 21.8%로 이 지역 출생자들의 분포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가족 구성원 수는 1인 3.1%, 2인 32.4%, 3인~4인 57.86%, 5인~6인 4.9%, 7인~8인 0.4%, 8인 이상 0.9%, 무응답 0.4%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n=225)

구분	항 목	응답수	구성비
성별	남	126	56.0
	여	99	44.0
연령	20세 미만	1	0.4
	21세~29세	14	6.2
	30세~39세	20	8.9
	40세~49세	55	24.4
	50세~59세	79	35.1
	60세이상	55	24.4
	무응답	1	0.4
결혼	기혼	193	85.8
	미혼	20	8.9
	무응답	12	5.3
학력	초등학교 졸업	39	17.3
	중학교 졸업	52	23.1
	고등학교 졸업	86	38.2
	대학 졸업	32	14.2
	대학원 졸업	6	2.7
	기타	10	4.4
가족구성원	1인	7	3.1
	2인	73	32.4
	3인~4인	130	57.8
	5인~6인	11	4.9
	7인~8인	1	0.4
	8인 이상	2	0.9
	무응답	1	0.4

구분	항 목	응답수	구성비
직업	전문직, 관리직	13	5.8
	사무직, 회사원	23	10.2
	판매, 서비스직	14	6.2
	학생	4	1.8
	자영업	16	1.7
	농/임/어/축산업	112	49.8
	주부	26	11.6
	무직	3	1.3
	기타	13	5.8
	무응답	1	0.4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69	30.7
	101~200만원	96	42.7
	201~300만원	45	20.0
	301~400만원	10	4.4
	401~500만원	1	0.4
	500만원 초과	2	0.9
	무응답	2	0.9
거주지	심곡동	37	16.4
	초구동	31	13.8
	만우동	41	18.2
	괴란동	24	10.7
	사문동	87	38.7
	기타(동해시내)	3	1.3
	무응답	2	0.9
거주기간	10년이하	10	4.4
	11년~20년	53	23.6
	21년~30년	61	27.1
	31년~40년	26	11.6
	41년~50년	26	11.6
	51년 이상	49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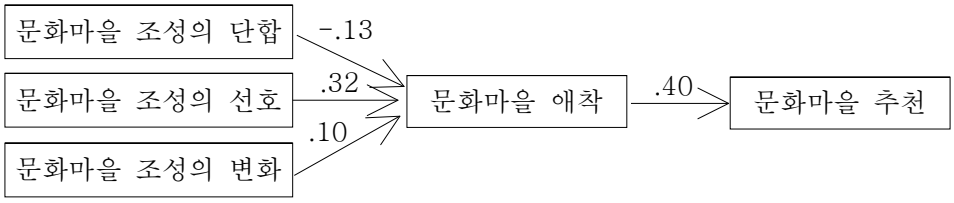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이 갖는 의식이 지역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착은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지역에 대한 애착, 지역의 추천의도 등의 변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경로도형 내의 변수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경로분석(path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요인과 변수간의 관계를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지역의 추천 의도에 이르는 기본모형이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로서 χ^2 값을 확인한 결과 χ^2 값은 3.820(df=3, p>.282)로 나타나 기본적인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합도 지수 중 GFI=0.993, AGFI=0.996, RMSEA=0.035 등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증분적합도지수 즉 기본모형과 null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NFI와 CFI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NFI=0.990, CFI=0.998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적 지수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기본모형은 적합성면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초 구성한 기본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2>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추천 의도에 이르는 경로모형에 대한 모형적합성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3.820	3	.282	.993	.966	.990	.998	.035



<그림 2>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추천 의도에 이르는 최종 경로모형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추천 의도에 이르는 최종 경로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결정요인으로서 문화마을 조성이 지역주민 단합에 미치는 긍정성,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 문화마을 조성이 마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수준 등 3개중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0.32, p=0.004). 그러나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결정요인 중 문화마을 조성이 지역주민 단합에 미치는 긍정성, 문화마을 조성이 마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수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마을 조성이 지역주민 단합에 미치는 긍정성은 표준화된 Regression weights=-0.13, p값이 0.135로 나타났다. 문화마을 조성이 마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수준은 Regression weights=-0.10, p값이 0.34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변수 중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는 지역주민의 애착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중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만이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문화관광개발의 수단으로서 문화마을 조성이 지역의 단합의식을 고무시키거나 문화마을 조성을 통하여 마을이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애착도는 문화마을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등의 추천 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0.40, p=0.000).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착도는 자신의 거주지역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등 문화마을 추천 의사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대한 공간적, 정서적, 관계적 애착 등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문화마을 추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관광개발에서 주민의 애착도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관광개발에서 선결과제가 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문화관광개발에서는 삶의 질을 고양하되 정서적 유대감을 해칠 수 있는 지역의 급진적 변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결정요인이 지역의 애착과 지역의 추천에 이르는 경로모형의 인과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직접효과에서 문화마을 조성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수준이 문화마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의 방향으로 .090으로 나타났다. 문화마을 조성이 지역주민 단합에 미치는 긍정성은 -.128로 부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지역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315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애착도가 지역의 추천에 정의 방향으로 .402의 영향을 보였다.

간접효과는 문화마을 조성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수준이 문화마을의 소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의 방향으로 .036으로 나타났다. 문화마을 조성이 지역주민 단합에 미치는 긍정성이 문화마을의 소개에 미치는 영향은 -.052로 부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지역의 추천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방향으로 .127로 나타났다.

<표 3> 문화마을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주민의 인식결정요인의 인과효과

구분		마을 변화	단합	마을조성	애착도
총효과	애착도	.090	-.128	.315	.000
	추천의도	.036	-.052	.127	.402
직접효과	애착도	.090	-.128	.315	.000
	추천의도	.000	.000	.000	.402
간접효과	애착도	.000	.000	.000	.000
	추천의도	.036	-.052	.127	.000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관광지로써 기본시설 조성은 완료했으나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이전 상태인 '약천문화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역사·문화자원 개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인식체계를 지역사회 단합,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선호도, 문화관광개발을 통한 마을의 변화에 대한 선호도를 변수항목으로 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방문객에게 지역을 추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망상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첫째,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3개의 변수 중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더욱 단합시키는 것과 문화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문화관광개발로 마을 주민간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문화관광개발로 마을의 급진적 변화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문화마을 조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는데 문화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는 마을의 자원을 타 지역 사람들 또는 관광객에게 추천할 의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었다. 즉,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방문객에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애착도 결정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관광개발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결정요인이 지역 애착과 추천에 이르는 경로모형의 인과효과에 대해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지역주민을 단합시킨다는 변수와 애착도, 추천의도에서 모두 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개발은 지역을 발전·성장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광개발이 지역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광개발지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지역주민간의 단합이나 마을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나 정책입안 시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검증한 연구 결과는 문화관광개발을 통한 관광영향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낮은 점과 변수 측정치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향후 시도되어야 함을 밝힌다.

참고문헌

손대현(2000),「한국문화의 매력과 관광이해」, 백산출판사, p.206.
조명환·양봉석(2004), "문화관광지 개발에 대한 김해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관광태도, 관광지원에 관한 연

구", 『관광·레저연구』, 제16권 제2호(통권 제27호), 한국관광·레저학회, pp.9-27.

강원도(1997),『江原의 얼 宣揚 綜合計劃』, p.209.

강인원·손호기(2006),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식 성향 비교 연구-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문화관광학회

고동완(2001),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 연구』, 제25권 3호, 한국관광학회, pp.63-80.

김석출·최영희·김학군(2006), "안면도 관광개발에 지역주민·관광객·관광 공무원의 관광영향 지각·태도·만족도 차이", 『관광연구』 제20권 3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1-19.

김성혁·이정규(200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문화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문화관광선택행동 분석", 『관광학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32호), 한국관광학회, pp.254.

김의근(2004),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제 7권 제7호, 외식경영학회, pp.123-138.

이후석(2004),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관광개발 태도의 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제28권 3호(통권48), 한국관광학회, pp.221-238.

조명환 역(2000),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p.28.

최영희·이원철·이훈(f2005), "동굴관광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및 영향 요인:지역애착과 태도이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제27호), 한국호텔경영학회, pp.193-215.

홍수희(2003), "정동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관광·레저연구』, 제15권 2호(통권 제24호), 한국관광·레저학회, pp.173-191.

Richards,G.(1997). The social context of cultural tourism. In Richards, G.(ed.) Cultrual Tourism in Europe. Wallingford:CAB International. p.24.

Silberberg, T.(1995). Cultural tourism a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museums and heritage sites. Tourism Management 16(2):p.361

Tighe,A.(1991).Research on cultural tourism in the United States.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Proceedings, p.387.

Andereck, K. L., & Vogt, C. A(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and tourism developnest op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9(1), pp.27-36.

Perdue, R. R., Long, P. T., & Allen, L.(1990), Resident w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pp.586-599.